

패션 주기의 터닝포인트 분석 -vogue 1997년과 2002년도를 중심으로-

유 지 현

상명대학교 생활환경학부 의류학전공

본 연구는 패션의 메인 스트림의 주기가 5년이라는 가정 하에 현재를 기점으로 역으로 5년 전인 1997년과 2002년을 패션 주기의 터닝 포인트로 삼고 한 주기 내의 패션 트렌드의 특성을 분석하여 패션 주기의 시작과 종결에 나타나는 메인스트림과 서브스트림 간의 차이점을 규명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범위는 보그 코리아 1997년도 12권과 2002년도 12권인 총 24권으로 설정하였다. 보그 코리아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 한 이유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인지도와 대중성을 지니고 있으며, 패션 트렌드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공신력 있는 잡지이기 때문이다.

연구방법은 1997년도와 2002년도 보그지에 실린 패션 트렌드 관련 기사 및 이미지 컷을 중심으로 내용 분석법에 의해 분석하였다. 분석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전공학생 34명에게 1997년과 2002년의 패션 아이템별 이미지 컷을 빔으로 보여주고 특징을 서술하게 한 자료와 보그지에 서술된 내용을 연구자가 재정리하였다.

분석 절차는 먼저, 1997년과 2002년도의 S/S 및 F/W에 나타난 아이템별 패션 특성 및 악세서리를 비교 분석한 후, 패션 주기 포인트의 시작 시기인 1997년부터 끝 시기인 2002년까지 5년간의 패션테마 이미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패션주기를 확인하고, 한 주기내의 메인 스트림과 서브 스트림을 비교 분석하는 순서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 결과 1997년은 1996년까지의 경향인 심플리시타에서 로맨티시즘으로 넘어가는 터닝 포인트였으며, 2002년은 97년 이후 지속되어온 로맨티시즘에 히피즘이 가미된 뉴로맨틱으로의 터닝 포인트라 할 수 있다.

차이점이 있다면, 1997년은 세기 말 적인 영향으로 시퀀드라는 심플리시티를 대표할 수 있는 메탈리한 소재와 심플한 실루엣이 주를 이루면서 여기에 에스닉이 가미되기는 했지만 이것이 복합적으로 혼합되었다기 보다는 서로 다른 분위기로 연출되었다. 반면 2002년에는 로맨티시즘이 무르익으면서 여기에 히피, 에스닉이 혼합되어 하나의 트렌드를 완성하면서 뉴로맨틱에 클래식과 미니멀한 페미닌이 가미되면서 새로운 터닝포인트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1997년은 패션계의 침체를 극복하려는 디자이너들의 희망이 로맨티시즘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2002년에는 9.11 테러 사태의 영향을 받아 희망적이고 따뜻한 분

위기로 몰아가기 위해 로맨티시즘이 재현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메인 스트림은 이처럼 일정 주기를 지니며 반복되어 나타나며, 여기에 당시의 사회·문화·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은 몇 개의 서브 스트림이 패션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와 현재의 패션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미래의 패션 경향을 예측할 수 있으며, 최근 패션 트렌드의 사이클을 2~3년, 또는 매 시즌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패션 테마의 메인 스트림은 여전히 5년동안은 지속되고 있음을 본 연구로부터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패션 디자인, 머천다이징, 마케팅전략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의복 구매 및 착용 행동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패션주기 터닝포인트 분석 시론으로서 분석 대상의 기간 및 대상 범위가 짧고 광범위하지 않은 것이 제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로 이전 기간 및 이 후 기간 동안의 광범위한 자료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제시된다.